



이름 있건 없건 네 모습 이닌가

절이 있는 산에 가면, 언제나 반갑게 그리고 새롭게 나에게 인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늘 즐겁다. 절로 가는 산길을 따라 냇가를 옆에 끼고 마음의 때를 씻으며 발걸음을 옮기면, 내 원컨, 오른편 그리고 앞과 뒤,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발 밑에서 온통 내 마음의 손을 발뚎고 인사하며 악수하는 이름 모를 나무들, 풀들 그리고 바위들이 나는 무척이나 반갑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눈길로 인사하고, 때론 손으로 쓰다듬으며 세상 속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마다 소리 없이 나에게 던지는, 그들의 미소는 나를 부끄럽게 하며, 무위자연의 빈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나는 원래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특히 나무이름, 풀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꽃이름, 풀이름, 나무이름을 잘 알고, 그 내력까지 줄줄이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하도 부러워, 일부러 그런 것을 공부하려고 책을 사 보기도 하며 아무리 애써도, 막상 자연 속에 숨어 사는 그들을 보면 그 이름과 내력들은 강그리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풀은 풀, 나무는 나무로만 보게 된다. 그리고 누가 그게 무슨 꽃이냐고 물어보면, 난 그냥 파란 꽃, 노란 꽃, 빨간 꽃,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이 무슨 소용일꼬

이름이란 사람이 사람의 소용에 따라 붙인 것일 뿐이다. 사람이 소용되지 않는 것은 이름을 붙이지 않아, 그냥 '집' 자를 붙여 버리고 만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밖에 있게 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난 잡풀이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사람으로 치면 잡놈이란 말인데, 잡놈은 다 똥을 놀림이 생각하는 이 불공평한 엘리트주의가 난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 그야말로 태초엔, 애당초 이름이 없던 세상인데 사람이 저 쓸모 있는 것만 골라 사람을 편하라고 제멋대로 이름을 붙여 놓곤, 저네들이 쓸모 없다고 이름 붙이지 않

감성으로 보는 **길**

<5> 하찮으나 귀한 생명-잡풀

은 생명은 무대점을 해? 이름 없는 것이 무슨 죄라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잡'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이름 있는 것 중에서, 또 뽑아 내어 '유명'과 '무명'을 갈라내고 나누어 차별해야 할까? 유명한 생명이 배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우러러 섬겨야 하고, '무명'의 생명이 거들떠보지 않으며 깔보는 사람들의 조차권의

자성 일깨워 주는 '잡풀화두'

세속 벗어난 이상세계 없듯

눈물달고 사는 삶도 즐거워

식세계가 나는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뽀뽀한 자이론바 엘리트들의 세상이 되고, 뽀뽀하지 못한 자들은 늘 짓밟히며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불공평한, 영종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오로지 홀로 귀하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은 낱날의 생명이 모두 홀로 귀하다는 생명선언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낱날의 모든 생명은 그 하나하나가 차별 없이 다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뽀뽀한 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문명은 생명을

시들고 병들어 가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닐까? 꽃만 아름답다고 하면 꽃의 본질인 잎은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무명의 생명 속에 참생명의 진리가 있고, 자성의 본성이 있고, 불신의 보현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명의 생명이 더 귀하다. 적어도 생명을 가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도 얼마나 세속 속에서 가식의 때를 묻혀가며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산 속의 이름 없는 풀들 속에서 나도 생명의 본성과 신선함을 깨닫는다.

나는 세속이란 말을 좋아한다. 세속 속에 나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불가에선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지만, 고해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실존'을 나는 뼈저리게 느낀다. 아픔의 세상, 괴로움의 세상, 그 세상 속에 내가 있고, 그 세상 속에 내 이웃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다. 그 속에 함께 하는 세속을, 늘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는 내 삶을, 이 세상을, 나는 '어릴 수 없이'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 세속을 벗어나선 종교도 이상세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세속)에 오신 뜻도 그럴 때 의미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정토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륵이 이 세상에 하생하여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이상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이 간혹 위험한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다.

숲 속을 보라, 길옆을 보라, 이름 있는, 이름 없는 온갖 초목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절로 가는 산길의 숲 속은 나에게 자성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화두다.

세존께서 길에서 문득 멈추시고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이 곳에 절을 세우라 하셨다. 제석께서 '한 줄기 풀'을 뜯어 땅에 꽂으며 말씀하셨다. 절을 다 지었습니다. 전생(사친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법등 밝히자”... 관심 고조

한글대장경 봉안 어떻게

현대불교신문사가 역경원과 함께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사찰에서 한글대장경봉안 불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의 증가는 한글대장경을 모시면 사찰이 불법 승 3보를 여법하게 갖춘 도량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불자들이 경전을 읽고 싶어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해 누구나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찰측의 원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 제작한 장경각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하는 불사의 형태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불사 형태 3가지를 소개한다.

한불자한권의 한글대장경 봉안

사찰에서 한 불자 한 권의 한글대장경 봉안하기 운동을 벌이는 것. 이를 통해 불자들은 대장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특히 대장경은 법신불이라는 신앙적 의미를 인식하여 경전읽기가 신생활의 기본자세임을 확고히 인식하게 된다. 한글대장경 봉안불사는 법신불을 모시는 불사이므로 지혜로운 삶을 발원하는 기도정진 불사를 결합할 수도 있다. 즉,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 기간을 정해 그동안 일정한 시간으로 예불시간에 지혜로운 삶을 염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 경우 인연 있는 경전을 여러 불자들이 함께 읽는 것도 의미 있는 의식이 될 수 있다. 불자들이 한 권씩 봉안한 한글대장경 318권 모두가 장엄스런 장경각에 봉안돼 사찰에 모셔지면 각종 행사와 더불어 뜻깊은 회향법회도 할 수 있다.

한글대장경 연구인등불사

장경각의 불단 아래 부분에 인등을 설치하여 연구인등 불사를 전개하는 방법이다. 장경각은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한글대장경 318권 전체가 봉안된다. 불단 아래 부분에 150 내지 200여 개의 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장경각의 인등은 한 번 켜면 영구히 관리될 해 주는 특별한 인등으로 특화시킨다. 법신불이 영가의 지혜를 밝혀준다는 의미이다. 인등은 전기를 사용 하지만 전력이 미세하고 휴즈 설치가 완벽하여 화재 위험은 없다. 거기에 장경각의 마감 도장에서 방염 방충의 효과를 내는 특수 도료를 사용하므로 더욱 안전하다.

한글대장경 읽기 동아리 활동

사찰의 신도들이 10여명씩을 단위로 동아리를 구성해 대장경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읽기 쉬운 경전을 먼저 선택해 구입하며 다른 동아리와 겹치지 않도록 한다. 동아리의 운영은 경전의 중요한 대목을 읽고 토론하거나 지도해 주는 스님에게 특강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꾸준히 지도해 줄 스님이나 교수님이 정해지면 더욱 뜻깊은 활동이 될 것이다. 임연태 편집위원

추천사

역사에 남을 큰 불사



석주스님
역경후원회장

1964년 7월21일 동국역경원 개원식을 거행하던 그 순간은 실로 감격적 이었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큰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가슴 벅찼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어느덧 37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벅찬 기대는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오늘의 감격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역경불사가 보다 완벽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의 선연이 필요합니다. 한글대장경을 사찰과 가정, 사무실에 두루 모시는 것이 불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네가닥철이 감동의 세상을 만듭니다



철이 있어 가능한 또 하나의 세상! 가슴 깊이 스며드는 첼로의 선율을 만나면 첼로 줄은 단순한 철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네가닥 철이 만드는 감동의 세상- 그곳에 철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있습니다



You & Music with POSCO [포스코 철의 문화] 포스코 철의 문화 1월 1000만 원의 문화 2월 1000만 원의 문화 3월 1000만 원의 문화 4월 1000만 원의 문화 5월 1000만 원의 문화 6월 1000만 원의 문화 7월 1000만 원의 문화 8월 1000만 원의 문화 9월 1000만 원의 문화 10월 1000만 원의 문화 11월 1000만 원의 문화 12월 1000만 원의 문화